

‘농’과 인문학, 농민은 천민(天民)이다

서성열(목사, 경남 양산중앙교회)

요즘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인문(人文), 인문학(人文學) 그러면 뭐가 먼저 생각나나요? 人文이라는 한자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인(人)은 사람이고, 문(文)은 글자라는 뜻이죠. ‘인문’의 사전적 의미는 ‘인류의 문화’라고 하고, ‘인문학’은 ‘인간의 언어, 문학, 예술, 철학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인문에서 文이라는 글자는 원래 사람의 가슴에 무늬가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 무늬가 있으니, 바로 ‘문신(文身)’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대인들은 화(禍)를 피하기 위해서 문신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통과례나 제사를 지냈는데 바로 그 때 문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文이라는 글자에는 고대의 신성(神聖) 관념이 서려있습니다.

사전(字典)에 文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글월 문, 둘째는 글자 문, 셋째는 문채(예악·제도 등 국가와 사회를 빛나게 하는 것) 문, 그리고 아름다움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혹시 문묘(文廟)라고 아십니까? 문묘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을 말합니다. 여기서 文이라는 글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바로 공자입니다. 그리고 중국 고대 주나라를 세운 왕의 이름도 문왕(文王)이라고 합니다. 『논어』 자한편에서 공자

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文王既沒 文不在茲乎(문왕기몰 문부재자호)

문왕이 이미 돌아가셨으나

문왕이 만든 문화는 내 몸에 있는 것이 아닌가!

공자가 존경했던 왕, 그의 이름에도 文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문묘 18현이 있습니다. 성균관 내성전 문묘에 ‘해동 18현’(海東十八賢)이 모셔져 있는데 포은 정몽주, 퇴계 이황, 율곡 이이 같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 했던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文이라는 글자는 ‘훌륭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자와 같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 성인(聖人)이라고 부르죠. 공자는 난세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성인(聖人)의 정치를 부활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요·순·우·탕·문·무·주공 등 7인을 성인으로 추앙하고 이들을 정치의 이상으로 삼았죠.

배병삼은 그의 책, 『우리에게 유교란 무엇인가』에서 9장 ‘왜 요순(堯舜)인가?’ 라는 대목에서 요순을 ‘여민’(與民) 정치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맹자가 순을 여민정치 또는 ‘왕도정치’의 모델로 삼은 까닭이 여기 있다. 맹자가 순을 새 문명의 모델로 삼은 까닭은 그가 말하기 (독백/권력)의 유혹을 벗어나 듣기와 대화를 통해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었던 이력 때문이다.”

저자는 순임금에게 나타난 성인(聖人)·성왕(聖王)의 모습을 ‘경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인의 성(聖)은 뜻을 나타내는 耳(귀 이)자와 口(입 구)자, 그리고 소리를 나타내는 壬(입)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여기서 壬은 ‘사람이 땅 위에 우두커니 서 있는 모양’인데 사람이 땅 위에 그냥 아무 뜻 없이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죠. 壬은 구체적으로 ‘사람과 하늘과 통하다’(通), ‘사람이 하늘의 소리를 듣다’(聽)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耳와

口的 뜻을 고려하여 다시 聖을 풀이하면 ‘귀(耳)의 구멍(口)이 잘 열려서 보통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신(神)의 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국 고대에는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천지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을 성인(聖人)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고대인들이 성인에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였을까요? 데이비드 N. 키틀리가 쓴 『갑골의 세계』를 보면 갑골 전사문(轉寫文)의 내용이 주로 기후(climate)와 농사(agriculture)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바로 농(農)이라고 할 수 있죠. 고대의 성인은 바로 농을 잘 되게 하고 농민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늘과 땅의 이치에 통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풀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인간은 농사를 짓기 전에는 수렵이나 채집을 통해 살았습니다. 고대인들은 동물을 사냥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동물의 움직임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사나운 동물로부터 자신과 부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도 동물의 소리를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는 여러 동물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농사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땅도 있어야 하고, 씨앗, 그리고 햇빛, 무엇보다 물이 없으면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왕들은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는 기우제(祈雨祭)를 지냈습니다. 그때에는 하늘에서 비가 언제 오는지 아는 사람, 기후(날씨)를 잘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로 천문(天文)을 잘 아는 사람, 하늘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도 기우제를 많이 지냈습니다.

경기도 안성군에는 조선 철종 임금의 기우제를 드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철종 임금 때, 그 해는 얼마나 가뭄이 심했는지 논밭에

심어둔 농작물이 모두 말라 죽고 땅까지 짹짹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철종은 기우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철종은 사직단에 제물을 올리고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해만 쨍쨍 내리쬐었지요.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내리지 않자 철종은 크게 실망하였고, 신하들을 시켜 마른 장작을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신하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장작을 준비했습니다. 철종은 신하들에게 장작에 불을 지르라고 했고, 마른 장작이라 불은 잘 타올랐습니다. 한참 장작이 타고 있을 무렵, 바로 그 때 철종이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신하들은 깜짝 놀라 철종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철종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옷을 놓아라. 백성들이 굶어 죽고, 온갖 곡식이 타 들어가는 것을 내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내 몸을 바쳐서라도 비가 오기를 간청해야 하지 않겠느냐.”

신하들은 그래도 철종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철종은 내가 덕이 부족해 하늘이 노한 것이라며 비만 내린다면 내 한 몸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며 신하들을 뿌리쳤습니다. 그 때 갑자기 하늘에서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굵은 빗줄기가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철종 임금의 비를 맞아 고뿔이라도 걸릴까봐 가마에 모시려고 했으나 철종은 가마에 오르지 않고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을 희생할 생각까지 하면서 비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 비 조금 맞은들 큰 일 나겠는가! 나는 이 비를 맞고 싶다. 백성이 그토록 원하던 비인데...”

그런 뒤 철종 임금은 가마도 타지 않고 비를 맞으며 경복궁까지 걸어갔다고 합니다.

세종대왕 때도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기우제에 관한 기록이 200건 가까이 됩니다. 실록에 보면 세종이 가뭄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세종 27년 5월 11일 실록의 기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比年以來 水旱相仍 (비연이래 수한상잉)
年穀不登 予心是慮 (연곡부등 여심시려)
今年旱災太甚 實予否德所致 (금년한재태심 실여부덕소치)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잇달아
곡식이 잘되지 아니하매 내 마음에는 이를 염려하였는데,
금년에도 한재가 크게 심하니 실로 나의 부덕한 소치이다.

세종은 가뭄과 한재의 원인이 ‘나의 부덕한 소치’,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데에 있다고 합니다. 조선의 임금들은 가뭄이 들면 감선(減膳)을 실시했습니다. 감선은 임금의 수라상에 음식 가짓수를 줄이는 것으로 왕의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농사를 망하게 하는 가뭄 앞에서 조선의 임금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는 기후와 날씨를 통해 자신의 도덕적 삶을 성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후변화의 시대, 우리의 잘못된 욕망은 지구를 뜨겁게 하고 이상기후로 인해 지구촌 곳곳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반구 사람들은 환경난민이 되기도 하고, 식량재배가 잘 되지 않아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하고 자문해보는다면, 성인은 하늘을 우러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늘의 소리나 동물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잘 먹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의 국왕들은 새해가 되면 농사를 장려하는 권농교서(勸農敎書)를 내렸습니다. 세종의 권농교서 서문의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국이민위본 민이식위천)
農者 衣食之源 (농자 의식지원)
而王政之所先也 (이왕정지소선야)
나라는 백성으로 근본을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 것인데,

농사(農事)하는 것은 옷과 먹는 것의 근원으로서
왕자(王者)의 정치에서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 백성은 먹거리를 하늘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農)은 옷(衣)과 음식(食)에 가장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농을 권장하는 것이 왕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종은 『농사직설』을 편찬했고, 직접 경복궁 후원에 1결(4,900평)되는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측우기(測雨器)도 세종 때 발명된 것인데 바로 농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 비이니깐요.

왕(王)은 고대에서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연결하는 큰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왕이 농사를 짓습니다. 농이 가장 으뜸이라는 것이죠. 『여씨춘추(呂氏春秋)』 사용론 심시편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夫稼爲之者人也(부가위지자인야)

生之者地也 養之者天也(생지자지야 양지자천야)

곡식을 심을 때는 심는 것은 사람이지만,

넣어주는 것은 땅이고 길러주는 것은 하늘이다.

이렇듯 인간(人)은 농(農)을 통해 하늘(天)과 땅(地)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앞장서 하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성왕(聖王), 훌륭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성왕은 성인(聖人)의 덕(德)을 이루는 왕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왕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다른 이들을 먹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왕은 농사의 모범을 보이고 농사에 가장 중요한 기후(날씨)의 변화에 자신의 삶을 거는 것입니다. 특히 성왕(聖王)으로 불리는 세종이나 정조 때에는 다른 왕들에 비해 권농교서가 많이 반포되었습니다. 맹자의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잘 말해주는 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民爲貴社稷次之君爲輕(민위귀사직차지군위경)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장 가벼운 것이다.

민(民)이 생명을 낳고 기르고 돌보는 일을 직접 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농민이 귀한 것은 농민이 먹이는 노동, 농사를 하는 데 있습니다. 민은 ‘생명을 양육하라’는 천(天)의 명(命)을 수행하므로 귀한 것이죠. 따라서 농민(農民)은 ‘천민’(天民)인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국왕은 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천명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국왕이 성왕(聖王)이 된다는 말은 농사가 잘 되고 농민이 잘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양 인문학의 토대는 농(農)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세기 중국의 대표적 철학자이자 철학사가인 펑류란(馮友蘭)은 『간명한 중국철학사』에서 유가와 도가는 모두 ‘농부의 생각’(農民的思想)을 표현한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문학은 농부의 눈으로 사람을 먹이는, 사람을 살리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인문학을 휴머니티스(humanities)라고 하지요. 이 말은 인간(human)에서 나왔고, human은 humus에서 유래했습니다. humus는 영양사전에 부엽토(腐葉土)로 나와 있는데, 어원사전에는 지구(earth), 땅(ground), 흙(soil)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humus에서 human말고도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homage라는 단어도 나왔고, humble(겸손)이라는 단어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농부 하나님께서 흙(아다마, adamah)으로 사람(아담, adam)을 만드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문학은 농을 통해 지구와 땅과 흙을 배우고 아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류역사 속에 사라진 문명들은 흙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문명도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현대 산업사회를 지탱해주는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원전사고가 난 후 3개월 후에 일본 소마시(市)에 사는 한 농부는

퇴비 창고 벽에 분필로 ‘원전만 없었더라면’하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3세 할머니는 자신의 집 마당에 목을 매었다고 하는데, 그 유서에는 “무덤으로 피난 갑니다”하고 적혀있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사람이 고농도 방사능 피폭으로 죽으면 말할 수 없이 처참하게 죽는다고 하는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죽은 사람을 그냥 땅에 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입금지 지역의 지정된 묘지에 납으로 특수처리가 된 관에 넣어 묻는다고 하지요. 성서에 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문명은 흙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가 봅니다. 흙이 죽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문학은 다름 아닌 흙을 살리는 공부입니다.

우리 시대 가장 주목할 만한 문명비평가인 웬델 베리(Wendell Berry)는 예수 그리스도를 흙과 같다고 했습니다. 흙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흙을 만나는 것이 바로 농(農)입니다. 웬델이 쓴 『농사 짓기』(farming) 라는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의 첫 시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제목은 ‘the man born to farming’인데 ‘농사짓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이 제목을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생각나더군요. 어찌면 웬델은 오늘날 우리에게 ‘당신은 농사짓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산문집 중 가장 중요한 책이 *The Unsettling of America* 인데 현재 제가 아는 분이 번역 중입니다. 웬델은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땅을 돌보는 것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가장 행복한 일이다. 남아있는 땅을 소중히 가꾸고 땅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일은 오롯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희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농적(農的) 인간입니다. 우리는 농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것입니다. 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탕에는 농이 있습니다.

얼마 전 『농촌과 목회』를 통해 소개된 『성서 문화 농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 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 듀크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로 계시는 엘렌 데이비스(Ellen F. Davis)입니다. 이 분은 여성으로 7명의 손자를 둔 할머니입니다. 그 집에 가 본 적이 있는데 두 딸의 가족사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손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로컬 푸드(local food)로 음식을 해주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아무튼 이 책 우리말 번역서의 제목은 성서 문화 농업으로 되어 있는데 원서에는 *scripture, culture and agriculture*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서 제목을 보면 이 책이 대략 어떤 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라임(rhyme)이 살아있죠. 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성서(scripture)는 그 당시 문화(culture)적 배경 속에서 쓰였고, 그 문화의 바탕에는 바로 농(agriculture)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눈으로 성서를 읽어야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렌 교수의 연구실 옆으로 가면 노먼 위즈바 교수의 방이 있는데, 이분은 학생들과 함께 텃밭을 가꿉니다. 작년(2014)에 프레드 반슨(Fred Bahnson)과 같이 쓴 『그리스도인은 왜 아무거나 먹을까?』라는 책이 국내에 소개되었습니다. 노먼은 자신의 프로필에 생태학과, 시골살이(rural life)를 전공으로 써두었습니다. 아마 시골살이를 전공으로 적어 둔 신학자는 노먼 교수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는 오늘날 생태학적 위기가 초래된 이유를 우리가 농의 삶, 농부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은 우주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농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물을 잘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창지기의 사명도 농을 통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동산에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창

2:15). 사람의 일은 근원적으로 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농을 통해 흙을 만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일구시는 농부 하나님이십니다(창2:8). 이렇듯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길은 농을 통해 흙을 만나는 것입니다.

농(農)의 세계는 생명의 근원적 세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을 통해 근원적 생명감각을 찾게 됩니다. 농을 통해 우리는 존재 이유와 존재 방식을 찾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농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여기서 농부는 바로 노농(老農)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점점 더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고 노인은 그저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만 여겨지는 실정입니다. 근대 산업사회 이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때 노인은 촌로(村老), 그러니까 마을의 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조선시대는 향촌사회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농촌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마을의 노인, 촌로들은 존경받았습니다.

세종(世宗) 때 편찬된 『농사직설』(農事直說)을 잘 아시죠. 농사직설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농서인데, 그 책의 서문을 보면 책을 쓴 까닭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 농법은 주로 중국의 농서를 참고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흙과 땅에 알맞은 농법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세종은 각 도(道)의 감사에게 명을 내립니다. 각 마을의 노농(老農)에게 물어보라고 말이죠. 노농이란, 바로 늙은 농부입니다. 늙은 농부는 ‘농사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죠. 노농으로부터 우리의 땅과 바람에 알맞은 농법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조선왕조가 500년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농의 저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왕조의 설계자로 잘 알려진 삼봉 정도전(三峰 鄭道傳)도 9년 간의 유배와 유랑의 시절 만났던 농부들을 통해 새로운 왕조를 창건할 수 있었습니다.

삼봉의 「답전부」(答田父)라는 글을 보면 그가 늙은 농부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봉은 그 농부에게서 당대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듣게 되지요. 이에 삼봉은 농부가 도가 있는 선비임을 알고 “노인장께서는 숨은 군자이십니다”(父隱君子也)하고 가르침을 청합니다. 하지만 노인장은 삼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予世農也 耕田輸公家之租 (여세농야 경전수공가지조)

餘以養妻子 過此以往 (여이양처자 과차이왕)

非予之所知也 子去矣 毋亂我 (비여지소지야 자거의 무란야)

나는 대대로 농사짓는 사람이요. 밭을 갈아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나머지로 처자를 양육하니, 이 밖의 것은 나의 알 바가 아니요. 그대는 물러가서 나를 어지럽히지 마오.

노인장은 자신을 농부라고 당당히 말하면서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삼봉은 늙은 농부의 눈을 통해 당시 관료 지식인들이 어떻게 비쳐지는지를 뼈저리게 느꼈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선비,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도 유배 시절 만났던 농부들을 통해 사상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다산의 시 중 제가 좋아하는 몇 대목을 소개합니다.

妻打胡麻郎獲稻(처타호마랑확도) 아내는 참깨를 털고 남편은 타작하는
世間豪傑是農民(세간호걸시농민) 이 세상 호걸은 바로 저 농민이라.

‘행차청양현에서’(行次靑陽縣) 중

熙熙田野氓(희희전야맹) 부지런히 일하는 들관의 농부들

動作何豪逸(동작하호일) 그 동작 진실로 호방하구나!

‘고시 27수’(古詩二十七首) 중

다산은 농부를 보며 ‘세상의 호걸’이라고 말합니다. ‘호걸’의 사전적 의미는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고 기개와 품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산은 농사짓는 농민의 모습을 보며 호방하다고, 농부를 호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산은 영웅호걸의 면모를 지닌 늙은 농부를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欲識治安策(욕식치안책) 나라 다스리는 방책을 알려거든
端宜問野農(단의문야농) 마땅히 농부들에게 물어야 할 일!
‘느릅나무 숲을 거닐며(楡林步晚二首)’ 중

다산은 이 땅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바로 늙은 농부의 지혜와 슬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농(農)에서 상상력을 얻고 대안을 찾았습니다.

우리시대에도 축복의 통로가 될 늙은 농부가 필요합니다. 늙은 농부야말로 우리 시대의 ‘라오쯔’(老師, 스승), 인문고전의 교사가 될 자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늙은 농부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의 문명을 살릴 것입니다. 농촌교회를 오고가는 많은 이들이 인문의 고수, 노농(老農)에게 한 수 배움을 청하기를 바랍니다. 農